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씨엘바이오** 올인원 크림바

“피부트러블 줄이는 ‘착한 비누’ … 中·日 공략”

씨엘바이오	
설립	2015년 10월
위치	서울 서초동
제품	비누·화장품·건강기능식품
특징	세포 재생을 돕는 씨엘균사체 원료 적용

우연히 발견한 균사체 원료 “피부질환·탈모에도 효과적”

99% 천연성분 비누 시판 日서 인기 … 해외시장 정조준

내년 혈당 조절 건강식 출시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가 대표 제품인 천연비누 ‘올인원 크림바’를 소개하고 있다. 전설리 기자

2015년 당뇨 치료제를 연구하던 씨엘바이오 연구원은 손이 하얘지고 부드러워진 것을 발견했다. 원인을 알아보니 항당뇨 효과가 높은 버섯 종균의 배양액을 자주 만졌기 때문이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이 버섯의 균사체를 원료로 비누를 제조해 봤다. 실험 결과 아토피 여드름 무좀 등 각종 피부질환은 물론 탈모에도 효과가 있었다. 그해 10월 씨엘바이오는 비누 제품 ‘올인원 크림바’를 출시했다. 비누 효능이 알려져 입소문이 났다.

씨엘바이오는 올가을 균사체를 원료로 한 샴푸와 치약, 기초화장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최 대표는 “췌장의 베타 세포 조직 재생을 돕는 균사체가 피부 항균, 재생에도 효과적이란 사실을 알아냈다”며 “제품 다양화와 매출 증대에 힘입어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여섯 배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모 샴푸 등 제품 다변화

2005년 당시 버섯사업을 하던 김병천 씨엘바이오 회장은 항암, 항당뇨 효과로 알려진 잔나비불로초를 채취해 인공 배양했다. 배양 과정에서 항당뇨 효과가 기존 종균에 비해 탁월한 종균을 발견했다. 2010년 한국미생물분석센터(KCCM)에 이 종균의 DNA 검증을 의뢰했다. 검증 결과 잔나비불로초가 아니라 구멍장이과 버섯으로 판명됐다. 잔나비불로초에서 공생하던 구멍장이과 버섯이 인공배양 과정에서 증식한 것이다. 이 버섯의 학명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ceriporia lacerate)’다. 씨엘바이오란 사명은 이 학명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 지은 것이다.

최 대표는 CL 균사체를 원료로 한 당뇨병 치료제를 시판하기 위해 2015년 김 회장과 손잡고 씨엘바이오를 설립했다. 치료제를 개발하던 중 피부 재생 효능을 발견,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씨엘바이오는 균사체가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계면활성제 등 화학 성분을 최대한 쓰지 않고 99% 천연 성분의 비누를 만들었다. 최 대표는 “비누의 효능이 알려져 한 개에 2만원에 가까운 가격에도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다”고 했다.

판매망은 이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씨엘플러스와 오픈마켓 등이다. 최 대표는 “다음달 샴푸가 나오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홈쇼핑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말엔 균사체를 원료로 당뇨와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본서 월 2만 개 판매

일본에도 진출했다. 지난해 회원 수 240만 명인 일본 역직구 온라인 쇼핑몰 ‘유업’을 통해 비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현재 월 판매량은 2만 개다. 중국 진출도 타진하고 있다. 지난해 위생 허가를 받았다. 지난달 말엔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뷰티수출교역회에 출품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일본 쇼핑몰 사이트에 피부 질환이 개선됐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온다”며 “러시아 독일 미국 멕시코 베트남 진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창업자인 최 대표는 서울대 바이오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한 뒤 동양매직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푸르덴셜생명보험으로 옮겨 보험영업을 하던 그는 지인 소개로 김 회장을 알게 돼 당뇨병 치료제사업에 뛰어들었다. 최 대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늘 안타까워 창업을 결심했다”며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7~9월 으뜸중기 제품 △어댑트-다운핏 △지비솔루션즈-루나스퀘어 엘리사 △그린테크롤-360폰즈 칫솔 △에어텍-마블 공기청정기 △푸드마스터그룹-닥터할리펫 밀크 △오토싱-자동물걸레 진공청소기 △테크온비전-화면 분할 모니터 △아이티버스-마우스 스마트 패치 △홈톡스닷컴-아쿠아팟 수중식 물공기정화기 △대정-하이진물병, 시크릿보틀 △작은평화-내 손안의 스마트 에어텐트 △씨엘바이오-올인원 크림바

“마이스 산업 발목 잡는 불공정 거래 관행 없애야”

김분희 한국PCO협회장

A공공기관은 지난해 대규모 국제회의를 진행해줄 기획회사를 뽑기 위해 공고를 냈다. 입찰 금액은 21억5000만원. B대행사는 20억5000만원에 최종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A기관은 계약금액을 20억원으로 깎았다. 지난 5월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사후정산을 할 때도 A기관은 다시 5000만원을 깎아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A기관은 최종 정산금액으로 입찰금액에서 2억원을 깎은 19억50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B사 관계자는 “정산금액은 깎였지만 진행 과정에서 추가 업무를 계속 요구해 인건비와 행사 진행비 등을 제하고 나니 오히려 1억5000만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김분희 한국PCO협회장(**사진**)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마이스(MICE)산업 발전을 위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CO는 컨벤션 전문가 단체다.

마이스산업은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 대규모 국제회의 및 전시 등의 행사를 열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분야다.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 순위는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2016년 997건으로 1위다. 국제회의기획업 업체 수는 557개, 종사자 수는 1만3599명(2015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마이스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5년에는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4.5% 떨어졌다”고 말했다.

산업의 외형 성장세와 이익률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데 대해 그는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업계 종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올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조달연구원은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건비 대관료 등 총비용의 6~8%를 일반관리비로, 총 입찰금액의 5~10%를 대행사 측에 이윤으로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권고 사항이다 보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아직도 많다는 게 PCO협회 측 설명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中企 3.4% 기술탈취 경험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약하기 전 기술자료를 요구받고 제공한 자료에 대한 서면(증거)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시행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에서 501개 기업 중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종별로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았다. 요구받은 시점은 주로 ‘계약 체결 전 단계’(64.7%)였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3곳 중 7곳(53.8%)은 대기업으로부터 서면을 발급받지 못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콩으로 만든 고기, 장내 유익균 늘려 건강 지킨다”

이정일 제이영헬스케어 대표

암환자 대상 임상도 추진 콩고기 간편식 연내 출시

바이오푸드 전문기업 제이영헬스케어가 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함께 식물성 고기가 장내 미생물 균총과 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인 20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시행해 연내 마칠 계획이다. 식물성 고기 섭취가 장내 미생물 중 유익균을 늘려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이정일 제이영헬스케어 대표(**사진**)는 “소장 대장 등 인체에 서식하는 100조 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다”며 “자체 개발한 식물성 고기를 먹기 전과 후의 장내 미생물 균총과 혈중 지질농도를 측정해 식물성 고기 섭취 효과를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식물성 고기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해외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하버드보건대학원 연구진이 13만 명의 성인을 평균 2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가공 적색육 대신 식물성 고기를 먹은 사람의 사망위험이 34% 감소했다. 이 회사는 비만, 당뇨, 암 질환자 대상 임상도 준비 중이다.

지난해 3월 설립된 제이영헬스케어는 미국의 콩고기 전문업체 헤리티지 헬스푸드로부터 지난 1월 콩 단백질을 활용해 콩고기를 만드는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 대표는 “기존 제품은 고기 맛을 내려고 식품 첨가제를 넣거나 식물성 단백질이 뭉치도록 코코넛오일을 첨가해 몸에 나쁘고 식감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며 “식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구조를 바꿔 고기 맛을 재현하면서도 포화지방은 거의 없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제이영헬스케어는 콩고기를 활용해 30여 종의 가정간편식 제품을 개발했다. 올해 3~5종을 출시한다. 건강식, 환자식, 노인식 시장도 겨누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세계 콩고기 시장은 2020년 3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이영헬스케어의 올해 매출 목표는 10억원이다. 2023년에는 1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국제 용접·절단 기술전 16일 창원서 개막

경남도 주최, 한경 주관 국내외 100개社 참여

2018 창원 국제 용접 및 절단기술전(Welding Korea)이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창원시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컨벤션센터,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관하는 B2B(기업 간 거래) 전문 전시회다. 기계, 조선 등 창원·마산의 산업단지 수요를 반영해 상담과 구매 계약 성과가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경남 지역에서 열리는 전시회 중 유일하게 국제전시협회(UFI)의 국제 전시 인증을 받은 행사다.

2년에 한 번 열려 18회째인 올해 행사엔 국내외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직전 행사인 2016년보다 20% 넘게 참가 기업이 늘었다. 베스트에프에이, 아아지엠서비스코리아, 파코인터내셔널, 코텍, 수퍼티그웰딩 등 행사 때마다 참가하는 단골 기업 외에 청송기계산업, 메소텍 등 30여 개 기업이 새로 참가한다. 용접·절단 공정의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대로보틱스와 스토브리, 화낙 등 로봇 브랜드 기업의 참가도 이전보다 늘었다.

웰딩 코리아 온라인 참관 신청 및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weldingshow.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